광양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세미나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아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도약 비전·목표 공유

ICT 기술 도시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 해결 등 스마트시티 이해 도와

광양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광양청년꿈터 다목적실에서 '광양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마스크 착용과 자리 띄어 앉기 등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영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ICT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한대철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팩토리센터장과 전진하 ㈜ITX엠투엠 회장을 초빙하여 '광양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및 '휴먼웨어와 스마트시티'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광양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강연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와 중앙정부, 전라남도로 이어지는 정책환경 및 방향성을 검토해 광양시 지역 현황을 반영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촉진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어 '휴먼웨어와 스마트시티'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욕구에 맞게 설계하고 수집한 정보를 통해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먼웨어(human ware)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개하는 한편, 이를 통해 시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바꾸는 스마트시티 조성방안과 사례들이 제시됐다.

이영만 부위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 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광양시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시, 강소농 경영지원사업 최우수상 '영예'

농부시장과정·온라인시장 크리에이터교육 온라인 유통채널 도입

여수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강소농·경영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지방농촌진흥기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장의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 교육지원 등을 추진해 강소농 역량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 강소농을 대상으로 농부시장과정, 온라인시장 크리에이터교육을 실시해 상품홍보·판매 및 판로 확대에 힘쓴 결과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며 강소농 실천교육을 추진해 강소농 육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여수시관계자는 "새로운 유통채널 도입 등 작지만 강한 농업의 실현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강소농 육성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별빛산책으로 지친 마음 힐링하세요"

내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59일간 진행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서원일원에서 오는 18일 오후 5시 30분 점등을 시작으로 내년 2월 14일까지 59일간 야간 별빛산책을 진행한다.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별빛산책은 일상을 벗어나 꿈 속 환상의 공간을 주제로 한 '판도라의 숲'과 별빛으로 물든 국가정원, 눈 내리는 '겨울정원'과 야간경관이 주요 관람 포인트다.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오른편에 연출된 '판도라의 숲'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똥별 사이로 떨어진 운석 한 조각에서 강력한 빛줄기들이 뻗어 나와 나무도감원에 잠들어 있던 흑두루미들이 빛에 물든 채 깨어나고, 정원은 신비한 환상의 공간들로 바뀐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공간 연출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첨단소재(광섬유 등)를 사용하여 주야간 이질감을 최소화했다.

반짝이는 조명을 따라 국가정원 서문으로 입장하면 아바타의 숲이 형형색색으로 관람객을 반기고, 하늘정원까지 관람객의 발걸음을 이끈다. 하늘정원 가는 길인 '스노우가든'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눈 내리는 특별한 겨울밤을 즐길 수 있다.

순천만WWT습지에는 '힘내라 대한민국'응원문구 연출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한다. 별빛산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나무도감원과 하늘정원 모두 일방통행으로 진행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시,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에 '순천의로(順天·路)' 당선

길과 정원을 품은 열린 청사…2022년 착공 2025년 완공

순천시는 지난 15일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프라우드건축사사무소와 Erher Ship(에테르쉽), 그리고 남정민(고려대학교)팀이 공동 출품한 '순천의로(順天·路)'를 선정했다.

순천시는 12월 초 작품 접수와 기술심사를 마치고 두 차례에 걸친 공모심사를 진행했다. 건축설계 전문가를 비롯해 대학교수 등 총 8명(예비1인 포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1단계 심사를 통과한 5개 후보작을 놓고 2단계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2등에는 ㈜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 3등은 ㈜핸드플러스 건축사사무소, 4등은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5등에는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승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순천의 아름다운 길이라는 뜻을 가진 최종 당선작은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도시적 특징을 새롭게 해석하여 순천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로서의 시청을 잘 제시해 보여주었다. 특히 '어번 매트(urban mat)'라는 개념을 제안해 시민들의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열린 청사를 구상하였고, 이러한 공간의 활동이 실내까지 확장된 매우 훌륭한 작품이다."고 평했다.

순천시 신청사는 '생태적이고 실용적인 청사, 시민에게 열린 청사'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현재 시청사 부지를 포함하여 대지면적 26,758㎡, 연면적 47,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새로 건립되는 청사에는 청사동과 의회동을 비롯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한편, 순천시는 공모 당선자와 2021년 12개월 간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2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5년에 준공될 목표로 추진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흥군분청문화박물관, 올해 3차 기증유물 수증평가위 개최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지속적으로 생활·민속유물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최근 2020년 한 해 동안 지역 주민들이 기증해주신 소중한 향토유물 460점에 대한 '기증유물 수증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일제강점기에서 1980년대까지 사용하던 농업도구, 어업도구, 축산도구 및 1960년 ~ 80년대 주민등록증과 졸업앨범, 상장 등 생활용품 등, 총 460점 중 402점이 '전시 가능'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자료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및 고흥갑재민속전시관에서 기증전시 및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